

독서프로그램, 왜 천덕꾸러기인가

방송과 출판의 '동상이몽'

정길화 · MBC 프로듀서 · PD연합회 회장

내가 입사한 지 얼마 안되던 무렵의 일이니까 어언 15년도 족히 넘은 일이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내게 떨어진 일 중의 하나가 독서 프로그램의 조연출이었다. '독서 토론' 인가 하는 제목의 이 프로그램의 형식은 우선 해당 주의 화제작 또는 문제작을 선정해 그 내용을 요약해 보여주고, 그 다음 저자와 평론가 그리고 독자가 스튜디오에 함께 앉아 책의 후일담과 읽고 싶은 얘기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꼭지 코너로 서점가의 화제나 신간 안내 등을 곁들이는 식이었다.

생색내기에 그치는 독서관련 프로그램

주말의 늦은 시각에 편성된 이 프로그램의 인기는 그저 그런 수준으로 기억된다. 시청률도 낮았고 이렇다 할 주목도 받지 못했다. 다만 TV가 책에 대해 그나마 이 정도 관심을 보여준다는 생색용의 느낌이 강했다. 그래도 조연출의 입장에서는 기라성 같은 베스트셀러 작가를 직접 뵙는다는 데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며 좋아하는 작가의 책이 선정되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기억이 새롭다.

특히 너리에 남아 있는 것은 책의 줄거리를 요약할 때 영상매체니만큼 그림으로 이를 보여줘야 하는데 따로 관련 내용을 촬영할 수도 없고 해서(일개 독서 프로그램에 그만한 제작비가 책정되지 않았다) 비슷한 자료화면으로 대충 그림을 연결하느라고 애를 먹던 일이다.

때는 바야흐로 TV가 기승을 떨치기 시작하던 그 때, 독서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사람들은 가장 편하고 저렴하게 시간을 때울 수 있는 수단으로 TV를 애용했다. '사로잡힌 포박자에게 탄환을 마구 쏘아대는' TV. 그

앞에 앉아 있으면 그냥 아무 생각없이 시간은 지나가고 전자파의 탓인지는 모르지만 예컨대 책을 본다는지 하는 의욕은 상실되고 그저 몽롱한 채 잠 속으로 빠져들기 일쑤다.

모름지기 방송의 속성이 그러할진대 그런 TV에서 '면피용'으로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과감한 제작비로 엄청 밀어줘도 어떻게 모르는 판국에 적당하게 때우는 식이면 프로그램의 경쟁력이 있을 수 없다.

결국 그 프로그램도 오래가지는 않은 것 같다. 내가 일하는 문화방송만 그런 것이 아니다. 방송가에서 독서관련 프로그램이 어쩌다 편성됐다 하면 통상 유사한 운명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다. 신간 안내나 서점가 화제작을 정보로 소개하는 프로그램 정도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본격 독서 프로그램은 과문한 탓인지 들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나는 재미있는 광경을 목도하게 됐다. 오락 프로그램으로 일세를 풍미한, 주병진의 '일요일 일요일밤에'란 프로그램을 기억하는 분이 많으실 줄로 안다. 한때 이 프로그램에 화제의 신간을 다루는 코너가 있었다. 해당 책의 내용을 다소 코믹하게 보여주면서 개그의 소재로 활용하는 그런 순서였다. 주병진의 순발력과 방자역을 하는 보조 MC의 어눌함이 교차되는 가운데 뜻밖의 웃음을 주었고 어쨌든 시청자들은 책이 소재가 된 코미디 프로그램을 즐긴 것이다.

관심을 끄는 것은 그 다음이다. 이 코너는 그런대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해당 프로그램의 이미지를 고양하는 것에도 상당히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그도 그럴 것이 고상하게 책 얘기하는데 나무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나아가 여기에 선정된 책들은 서점가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켜 몇몇 책은 베스



책프로그램으로 방송됐던 <책과의 만남> (위)과 <TV책방>. 지금과 같은 시청률 경쟁풍토 속에서 독서관련 프로그램 편성은 호사스런 이상주의로 간주될 뿐이다.



트셀러의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일부 출판사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엄청난 로비를 했다가 어쨌든가...

정통과 코미디의 사이

이 두가지 사례는 다분히 방송사와 출판계가 책을 둘러싸고 어떤 동상이몽(同床異夢)을 하고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전자는 방송사의 의지부족과 투자 부족이다. 프랑스의 경우 독서관련 프로그램이 프라임 타임대에 편성돼 수준 높은 토론이 전개되는 가운데 시청률도 상당하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다.

우리 방송사의 경우 애초에 의지가 부족하니 변방 시간대에 편성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시청자의 접촉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연히 시청률도 저조하고 광고주도 외면한다. 곧 빈곤의 악순환이다.

본격, 정통(근엄하게 둘러앉아 토론하는 것만이 본격이고 정통이냐에 대한 의문도 있을 수 있으나...) 프로그램으로는 안 된다 싶으니 이젠 코미디 소재로라도 책을 다뤄 본다. 이른바 '당의정 이론'으로라면 딱이

잘못된 일은 아니다. 책에 대해 막연히 갖고 있는 딱딱한 이미지를 불식해 대중들에게 다가간다면 그것은 격려할 일이지 비난할 일은 분명 아니다.

하지만 작가나 저자의 입장에서는 심혈을 기울인 내용과 사상이 방송에서 실종되고 말초적인 말장난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는 것은 유쾌하지만은 않았을 것도 같다.

그런데 이번엔 출판계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 즉 어떻게든 방송에 한번이라도 나와 책이 많이 팔리기만을 바란다. 이 자본주의 시대에 그 또한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그전까지 이 땅의 독서풍토를 왜곡시킨 주범을 방송으로 매도하단(?) 이들이 도리어 방송에 추파를 던진다. 즉 후자의 경우는 우리 출판계의 영세성과 그로 인한 일종의 상업주의를 예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출판계에서 방송을 생각하는 것은 홍보나 광고의 효용 측면뿐이라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

모름지기 독서 관련 프로그램은 책이 하나의 소재일 뿐 책에 담긴 내용과 세계관을 토대로 또다른 토론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

<독서관련 프로그램 현황 >

| 방송사 | 제목 | 방송시간 |
|-----------|-------------|--------------|
| KBS TV | TV책방 | 일 오전 6시 40분 |
| KBS 1라디오 | 책마을산책 | 일 오후 12시 |
| KBS 2라디오 | 라디오독서실 | 일 오전 6시 |
| SBS 표준FM | 김갑수의 책하고 놀자 | 월~토 오후 4시 5분 |
| EBS FM | 책나라여행 | 일 오후 3시 |
| EBS FM | 책과의 만남 | 토 오후 9시 |
| EBS 위성1TV | 즐거운 책읽기 | 월 오전 10시 20분 |

“독서를 통해 삶의 즐거움을”

‘전국민 책읽기운동’ 추진기획단위원장 맡은 신현웅 문화관광부 차관



이라고 감히 정의해 보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단기 시청률에 지배되지 않고 공익적인 프로그램을 편성하겠다는 방송사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책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가 시급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청률 경쟁 풍토와 광고주가 시청률을 보고 광고집행을 결정하는 엄혹한 구조하에서는 호스스런 이상주의로 간주될 뿐이다. 특히 진지하고 무거운 것을 싫어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독서 관련 프로그램 편성을 엄두조차 못 내게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소 책임회피적인 말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방송에서 독서관련 프로그램이 자리잡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방송사 차원을 떠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출판제도 그렇다. 출판사가 방송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는 주로 신간을 발행할 때다. 물론 당연한 얘기는 하지만 어쩐지 속보이는 것 같다. 단기성과에 연연해 홍보의 수단으로 독서 프로그램에 접근할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다(방송이 그동안 출판에 위해 될 해준 게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면 할 말은 없다).

수단으로 책을 읽지 않고 독서를 생활화하며 그런 가운데 항상 토론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풍토가 조성된 사회, 경박하고 값싼 문화에 경도되지 않고 가끔은 진지하고 사색적인 주제와 엄숙하게 만나는 사회, 단기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꾸준히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 그런 사회라면 방송에서 독서관련 프로그램이 황금시간대에 능히 편성돼 오래도록 시청자의 사랑을 받으며 방송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방송에서 독서 프로그램이 자리를 못 잡고 있는지에 대한 펴남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과연 그런 날이 올까? ♦

문화관광부(장관 신낙균)가 ‘읽으면 행복합니다’는 슬로건 아래 ‘전국민 책읽기운동’을 펼친다. 문화관광부가 12월까지 연중 캠페인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중앙과 지방의 공공·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참가, 실천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대국민 홍보를 위해 총슬로건과 로고체, 엠블럼, ‘책키북키’라는 캐릭터를 제작하고 5월 초부터 공익광고를 방송하고 있다. 다양한 기획이벤트로 독서저변을 확산시키고 독서진흥 기반사업도 확충할 계획이다. 추진기획단위원장을 맡은 신현웅 문화관광부 차관으로부터 추진배경과 사업방향, 그리고 계획을 들어본다.

■ 책읽기운동을 펼치게 된 계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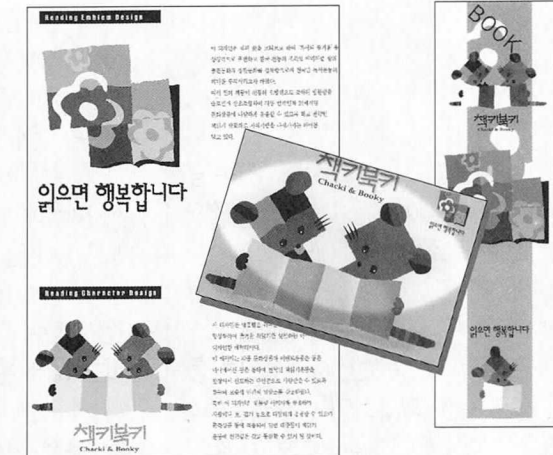
— 21세기는 지식정보사회가 될 것이다. 21세기에 경쟁력 있는 신지식인이 되기 위해 무엇보다 독서가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독서환경과 실태는 열악한 수준이다. 국민들이 독서를 통해 삶의 즐거움과 함께 실제적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

■ 캠페인의 방향과 구체적 내용은?

— 아무리 좋은 캠페인이라도 국민들이 책을 읽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책을 읽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미 CI(이미지통합)를 개발하고 공익광고를 제작해 언론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밖에 ‘이달의 추천도서’를 선정발표하고 ‘사랑의 책 보내기’ 운동 등 지속적인 사업과 전국 독서경연대회(가칭)·‘밀레니엄 북타워’(가칭) 제작설치 등 다양한 기획이벤트도 추진하고 있다.

■ 이번 캠페인은 민간기관과 시민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관과 민을 어떻게 조화시켜나갈 생각인가?

— 이번 캠페인의 3대 기본원칙은 자율성과 참여, 개별 주체성 존중, 지속적 추진이다. 정



신현웅 차관.

캐릭터 ‘책키북키’의 다양한 모습을 새겨넣은 ‘전국민 책읽기운동’ 홍보용 전단과 엽서·책갈피와 배지.

부는 독서환경의 기반조성과 행정적·제도적 지원에 중점을 두며 민간단체는 독자적으로 다양한 독서운동을 펼치게 된다. 정부와 민간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와 조화가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

■ 우리 국민의 독서환경의 개선방향은?

— 한국출판연구소의 국민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1인당 월평균 독서량은 0.8권이며 1년간 책을 한권도 읽지 않은 사람이 17.5%인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국민들이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여건조성이 가장 시급하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을 확충하고 활성화해 국민들이 늘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출판 선진국은 도서관이 도서의 1차 소비자다. 이번 캠페인의 주요 목적인 국민들의 독서기회 증대를 위해서는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 무엇보다 도서관 수를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 2011년까지 공공도서관을 750개까지 확충해 국민 6만명당 1개관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특화도서관과 특수지역 도서관 건립도 지원해 질 높은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지원규모도 올해 45억원에서 2천년 이후에는 100억원대로 대폭 확대해 공공도서관이 도서의 1차 소비자가 되도록 할 것이다. 그밖에 국가문헌종합목록 및 본문정보 DB구축을 확대하는 등 전자도서관 확충에도 힘을 기울인다.

■ 출판산업은 지식정보산업의 근간이다. 정부는 개별 출판영역보다 출판인프라 구축에 힘쓴다는 복안을 밝혔다. 추진사업내용과 방향은?

—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경기도 파주에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성해 이 일대를 출판문화산업의 메카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2002년까지 25만평의 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이어 2단계 공사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동 단지의 심장역할을 맡을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가칭)와 유통현대화를 위한 출판종합유통센터 건립도 추진중이다. 그밖에 양서출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02년까지 출판금고기금을 500억원으로 확충하고 학술출판지원도 확대할 것이다.

■ 출판산업진흥을 위해선 법적 및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출판진흥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알려졌는데, 그 추진배경과 방향은?

— 현재 출판에 관한 법은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과 ‘외국 간행물 수입 배포에 관한 법률’로 나뉘어 있어 단일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 전자출판물의 등장, 출판유통의 전산화 필요성 등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따라 출판문화발전을 위한 ‘출판진흥법’(가칭)을 제정하려고 한다.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금년 안에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완진 기자